

제16장

여섯째 환상: 두 짐승의 멸망(19:11-21)

여섯째 환상은 바벨론의 멸망에서 두 짐승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 두 짐승은 13장에서 소개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 즉 이 환상은 교회를 박해하며 미혹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하수인들이다. 이런 점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반기독교적인 악의 세력을 지칭한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을 상징하며, 거짓 선지자는 그 반기독교적인 정치 세력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세상의 거짓된 종교 세력을 상징한다.

1. 백마 탄 심판주 예수님(11-16절)

하늘에서 한 백마 탄 자가 내려온다. 그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피스토스’)는 ‘충성, 성실, 믿을만한 것’이라는 뜻이며, ‘진실’(‘알레띠노스’)은 ‘참된’ 또는 ‘진리’라는 뜻이다. 즉 ‘충신과 진실’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과 진실하신’ 분으로 소개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피스토스)되고 참된(알레티노스)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3:14)

이 구절은 충신과 진실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백마 탄 자’는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타고 오신 백마의 ‘흰’ 색깔은 ‘승리’를 상징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철저히 짓밟고 멸망시켜 사단에게 완전히 승리하실 것을 암시해 준다.

예수님과 함께 사단과 싸우기 위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땅에 내려온 하늘의 군대들’은 누구일까? 일차적으로 ‘성도들’을 의미한다. 계시록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자들로 묘사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17:14)

하늘의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14 절) 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성도들이 입는 혼인 예복을

말한다. 이것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 탄 자들’이 바로 예수님과 혼인할 신부되는 성도들인 것을 증거한다.

백마 탄 자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예수님은 승리한 교회에게 흰 옷을 약속하셨다(3:4-5). 하늘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다(4:4). 하늘의 성전 제단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흰 옷이 주어진다(6:11). 하늘의 승리한 교회가 입고 있는 옷도 흰 옷이다(7:9). 이러한 점에서 ‘백마를 탄 흰 옷 입은 하늘의 군대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들인 것을 증거한다.

‘백마 탄 하늘의 군대들’은 또한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 16:27)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마 25:31)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살후 1:7)

천사들은 성도들과 같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15:6)

이러한 점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백마 탄 하늘의 군대들은 성도들과 천사들 모두를 의미하며, 이는 종말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구원받는 성도들과 함께 사단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교훈한다.

2.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

심판주로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12-13 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다. 이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심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다. 세상의 재판관들은 증인들의 말을 듣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며, 때로는 잘못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에 세상을 재판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오판도 하지 않으실 것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신다. '머리에 많은 왕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이다. 용은 그의 머리에 일곱 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고, 짐승은 그의 머리에 열 개의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왕관을 쓰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 준다.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옷은 누구의 피로 물들여진 것인가? 바로 대적들의 피다. 예수님은 대적들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으시고 밟으신다(15 절). 그 결과 짓밟힌 대적들의 몸에서 솟구친 피에 젖어 예수님의 옷이 피 뿌린 옷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심판이 매우 공정하고 혹독한 것임을 보여 준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검”(히 4:13)과 같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1:16)으로,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2:12)로 묘사한다. 뿐만 아니라 종말에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며 철장으로 만국이 다스려’(15 절)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19 절)이 죽게 될 것이라고 표현한다. 여기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말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종말에도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교훈한다.

3. 두 짐승에 대한 심판과 멸망(19:17-21)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는 세상은 크게 두 장면으로 묘사된다. 한 장면은 ‘하나님의 잔치 초대’(17-18 절)이며, 또 다른 장면은 ‘최후의 종말 전쟁’(19-21 절)이다.

1) 하나님의 잔치 초대

백만 탄 예수님의 군대들은 짐승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였으나, 짐승과 그들의 군대들은 완전히 패망하게 된다. 이때 한 천사가 등장하여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전쟁에서 패한 세상의 사람들의 죽은 육체를 먹도록 초청한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17-18 절)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은 전쟁에 패하여 죽은 곡과 마곡의 시체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 하늘의 각종 새들과 땅의 짐승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온다.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겔 39:17-18)

요한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종말에 임하게 될 불신자의 멸망을 시각적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시체가 각종 새의 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의 결과이다.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신 28:26)

이와 같이 마지막 심판으로 인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 불신자들의 시체가 새들에 의해 찢기고 먹히는 장면은 불신 세상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 지를 잘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새들이 잔치에 초대되어 세상의 불신자들의 시체를 배불리 먹는 장면(21 절)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들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종말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말미암아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불신자들은 새의 먹이가 될 하나님의 큰 진노의 잔치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1)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

요한은 세상의 최후의 멸망을 종말론적 전쟁에 비유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종말에 세상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다 함께 모여 백마 탄 예수님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벌인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19 절)

이 구절은 예수님과 사단 간의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을 묘사하는 내용이다. 최후의 종말론적 전쟁은 세상 마지막 날에 벌어질 전쟁이다. 이 종말론적 전쟁 이후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이 된다. 이 전쟁은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을 의미하며(16:12-16), 이 종말론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백마 탄 예수님과 짐승과의 최후의 종말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짐승과 짐승을 따른 모든 대적들은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이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20 절). 여기서 전쟁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고 단지 짐승과 함께한 군대들의 패배 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영원한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두 짐승의 멸망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은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 다 멸망하게 된다. 그들은 모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20 절) 던져져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더욱 강한 믿음 위에 서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인내하여 세상과의 싸움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